

민주주의 살린 촛불...5·18과 세월호 진상 밝혀야 이게 나라다

촛불집회가 남긴 것들

‘임 행진곡’ 제창·軍 특조위 조사·‘5·18특별법’ 발의 이어져
세월호 인양·진상조사 활력 ... 해경 부활 등 국가조직 정상화

2016년 10월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집회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다. 촛불집회는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집회·시위문화가 바뀌었고 5·18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었다.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본격에도 오르고 해양경찰청도 부활했다.

비폭력·평화시위 문화 확산

◇집시법 개정 단순 마련=지난달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살수차 투입 금지 등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촛불집회와 같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는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큰 틀 아래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살수차 사용 가능 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로 제한하고, 사용 명령권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채증도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5·18 진상규명의 기회

◇5·18 진상규명 재점화=촛불이 일궈낸 정권 교체는 지난 37년 동안 미완의 과제였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와 위상 강화를 이끌었다. 지난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5·18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제창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의 5·18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자연스럽게 진상규명 분위기로 조성됐다. 특히 지난 8월 5·18 당시 전투기 광주 폭격 대기설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즉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지난날 11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과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침몰 원인 조사 불가피

◇세월호 진상조사 등 활력=2014년 1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1년6개월간 이렇다할 결과 없이 지난해 6월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교체되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활력이 생긴다.

지난 3월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7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를 구성해 본격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같은 달 22일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고 4월11일 육상 거치돼 1091일 만에 참담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내며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친다.

선조위는 기존 단순 세월호 관련 기록물 복원 등과 달리 특별법에 근거해 핵심현안인 사고 과실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부활=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 뒤인 2014년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열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4년11월 해양수산부 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위상이 격하됐다.

해경 해체 발표는 기존 수사와 구조·구조 기능은 둘째지더라도 주요 임무였던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를 계기로 해경 부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며 국민안전처를 폐지해 행정안전부에 편입, 산하 해경이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2년8개월만에 다시 예전의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자 불법 중국어선 단속도 다시 활기를 띤다. 지난 16일 부터 시작된 중국 쌍끌이(타방)어선 조업 허가 기간을 앞두고 서해해경은 5일간 선제적 특별단속을 벌여 3척을 나포하는 등 본격 활동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년 전 ... 광주 금남로는 ‘촛불의 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정의를 외친 지 1년이 다가온다. 사회정의와 적폐청산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1년이 지나면서 정치·사회 등 전반에 많은 유산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금남로 21차례 촛불 밝혀... 6차 때 15만 명 참여 자유발언·음악공연... 웃음 넘치는 민주주의 축제

광주의 촛불

기존 집회와 시위는 항의와 고성이 오가며 경찰과 참여자들의 몸싸움으로 점철된 부정적 이미지였다.

촛불집회는 집단행동 보다는 자유발언, 음악공연 등 공감과 웃음으로 채워지며 집회 문화를 한차원 선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또 집회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줍기 등에 나서며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줬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모두 136일 21차례 촛불이 타올랐다. 1000명으로 시작된 촛불은 1주만인 2차 촛불에 5배(5000명)로 늘어났다. 참가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4차 때는 이보다 14배 늘어난 7만명, 6차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5만명으로 불

어나기도 했다.

광주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박퇴본)다. 89개 시민사회단체와 6개 정당 등 모두 95개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조직이다.

박퇴본은 지난해 9월 1년의 병원생활 끝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결성된 백남기 투쟁본부(백투본)가 전신이다. 같은해 10월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살인정권퇴진 범시민대회’를 시작으로 10월22일에는 참가자가 두배 늘어난 ‘사드배치 저지, 11/12 민중총궐기 성사 백남기농민 살인정권 규탄 광주시민대회’가 열렸다.

박퇴본의 첫 집회는 10월29일 열렸으며 이후 매주 토요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남로에 모였다.

첫 집회는 1000여명이 참가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양동시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일주일 뒤인 11월5일에는 촛불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참가자수는 5000여명으로 늘었다.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는 11월12일에 열렸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는 광주에서만 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였다. 11월19일에는 1980년 5월 5·18민주성회를 재현한 촛불이 등장했으며 12월3일 6차 집회는 주최측 추산 15만명이 참여해 정점을 찍었다.

올 1월7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열린 제11차 집회는 ‘세월호 1000일, 노란 바람개비’를 주제로 금남로를 노란색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유가족 등과 함께한 이 집회는 광주정신으로 아픔을 달래주는 자리였다.

시민을 금남로로 이끈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대통령의 ‘3차 담화’였다.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금남로 1가 1번지 전 일발당에서 금남공원까지 발디딜 틈없이 들어섰다. 이날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우병우·김기춘·새누리당·재벌 등 부역자 처벌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올해 3월10일 이후인 지난 4월 15일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총 21회에 걸쳐 50여만명이 참여해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보증금 받아!

빈병보증금 상환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산 제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수입산 제품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조예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000ml 이상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